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성장판 회복을 통한 증성장 경로 복귀
-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시리즈 ② 성장)

목 차

■ 성장판 회복을 통한 중성장 경로 복귀

-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시리즈 ② 성장)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성장 부문의 문제점	2
3. 성장 부문의 비전과 전략	5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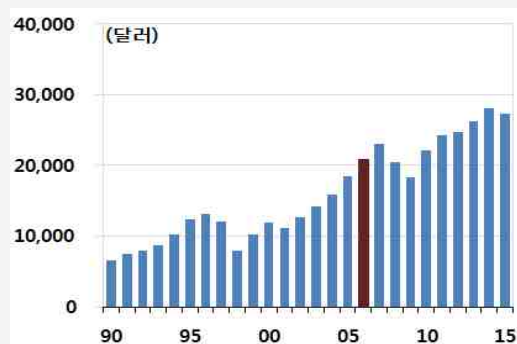
Executive Summary

□ 성장판 회복을 통한 중성장 경로 복귀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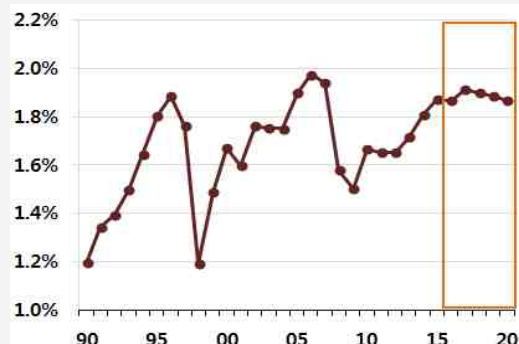
한국경제는 성장판이 너무 일찍 닫히는 ‘성장판 조기 폐쇄(Premature Closure of Growth Plate)’에 직면하여 ‘국민소득 2만달러대 함정’에 갇히고 ‘경제적 비중 2% 제약선’ 극복에 실패하였다. 경제성장은 지속되고 있으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2006년 2만 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약 10년 동안 3만 달러대로의 도약에 실패함에 따라 민간주체들이 경제발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2%선 돌파에 실패하고 있다.

<그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자료 : 한국은행.

<그림> 한국GDP/세계GDP 비율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IMF통계 이용).
주 : 2016년 이후는 IMF 전망치.

■ 성장 부문의 문제점

성장 부문에서 발견되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역동성 약화 현상을 들 수 있다. 한국경제는 경제성장률 2%대의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1%대의 경제성장률에도 익숙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주된 원인은 과거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의 힘이 되었던 가계 및 기업의 역동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한국경제는 방향성을 상실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성장잠재력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시급히 높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사회 내 불평등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성장보다는 복지에 치우치는 자원 배분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복지가 뒷받침되어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는 필요성이 인정되나, 저성장 함정 극복이 시급하기 때문에 성장과 복지의 선후관계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경제충격이 상시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증폭되어 성장력이 감소하고 경기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 내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유럽재정위기(2012년), 차이나 리스크(2015년)의 세 번의 큰 경제충격이 발생하면서 세계 및 한국 경제의 안정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와 기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유동성 동맥경화’와 ‘부채성장’(유동성으로 경제가 지탱)이 장기간 지속중이다.

■ 성장 부문의 비전과 전략

(비전) 향후 한국경제가 성장 부문에서 가지고 가야될 비전은 성장판 회복을 통한 중성장 경로로의 복귀이다. 이를 통해 ① 잠재성장률 3% 달성, ②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대 진입, ③ 세계경제 비중 3% 돌파라는 「3-3-3」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

(전략)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장 부문 3대 전략으로는 ① 역동적 성장잠재력의 복원, ② 한국형 경제발전전략의 구축, ③ 안정적 경제성장경로의 확보이다.

(과제) 구체적으로 제시된 전략중 ① 역동적 성장잠재력의 복원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는 첫째, 역동성 회복을 통한 경제 활력 확보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경쟁원리 정립) 시장원리를 근간으로 하여 공정경쟁의 규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성과보상주의 확립) 또한 성실하고 근면한 주체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되어야 한다. 한편 (프론티어 정신 확산) 기업과 개인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위험을 회피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무형의 내연성장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구조의 업그레이드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와 혁신 주도 경제시스템 구축) 사회 내 모든 분야에서 창의성이 강조되고 혁신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경제구조가 요구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 제도 확립) 창의적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인적자본투자 확대가 시급하다. 한편 (사회 투명성 제고) 부패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비경제적인 낭비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셋째,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자본축적 확대) 경제성장의 핵심 원동력인 자본축적과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활성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한편 (노동력 확보) 미래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노동시장구조의 유연성 확보, 출산을 제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촉진, 적극적 이민정책 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② 한국형 경제발전전략의 구축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넷째, 실현 가능성이 높은 추격형 성장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추격형 성장 모델 유효) 한국경제가 공급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 미흡한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성장 전략은 선도형 모델보다 추격형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장기적으로 선도형 성장 모델로의 이행) 멀리 본다면 경쟁국들보다 앞서 나갈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과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이 유지되어야 한다. 우선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성장) 수출이 경제성장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내수가 경제의 안전판으로 작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나아가 (적극적인 미래 수출시장 확보 노력)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출시장을 지키려는 정적이고 수성적인 전략에서 벗어나 미래 수출시장을 예상하고 선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기업-민간 주도형 경제성장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즉 (기업 생산 주도형의 성장) 일회적인 소득이나 소비 등의 수요가 아닌 지속 성장과 환류가 가능한 '산업과 기업의 생산 주도형'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민간 주도형의 성장) 또한 민간 영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산업과 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일곱째, 성장 주도형 분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우선 (先성장-後분배) 성장으로부터 시작되어 그 과실이 분배되는 선순환(virtuous circle)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③ **안정적 경제성장경로의 확보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덟째,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대외 불확실성 차단에 주력해야 한다.** 우선 (글로벌 위기의 상시화 대응)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로 인한 글로벌 위기의 상시화 가능성을 고려한 대외충격 파급경로의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차이나 리스크 대응 전략 마련) 중국경제는 중장기적으로 최소 한번 이상의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아홉째, 내수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안전판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수 건전성 관리) 가계부채 확대를 경계하고 실물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내수의 구매력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재정 및 통화정책의 유연성 확보) 재정 및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경기안정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림> 성장 부문의 비전과 전략 요약

비전: 성장판 회복을 통한 증성장 경로 복귀

『3 - 3 - 3』 목표 달성

- ① 잠재성장률 3% 달성
- ②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대 진입
- ③ 세계경제 비중 3% 돌파

전략 1. 역동적 성장잠재력의 복원

- 역동성 회복을 통한 경제 활력 확보
- 무형의 내연성장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구조의 업그레이드
-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제고 노력

전략 2. 한국형 경제발전전략의 구축

- 실현 가능성이 높은 추격형 성장전략 추구
-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모델 유지
- 기업-민간 주도형 경제성장
- 성장 주도형 분배 시스템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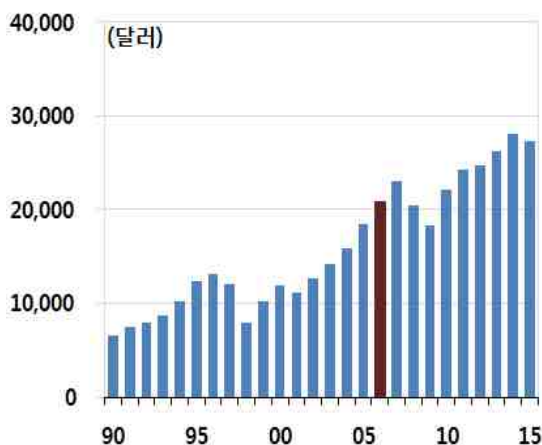
전략 3. 안정적 경제성장경로의 확보

-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대외 불확실성 차단
- 내수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안전판 기능 강화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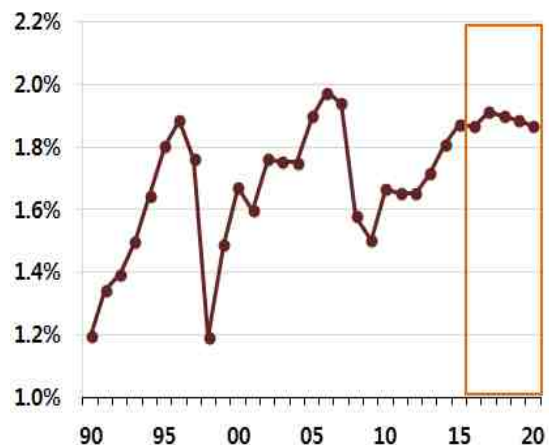
- 한국경제는 성장판이 너무 일찍 닫히는 ‘성장판 조기 폐쇄(Premature Closure of Growth Plate)’에 직면하여 ‘국민소득 2만달러대 함정’에 갇히고 ‘경제적 비중 2% 제약선’ 극복에 실패
 - (국민소득 2만달러대 함정에 속박) 경제성장은 지속되고 있으나 그 속도가 현저히 감소하면서 민간주체들이 경제발전을 체감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
 -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는 2006년 2만 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약 10년 동안 3만 달러대로의 도약에 실패하고 있음
 - (경제적 비중 2% 제약선 극복 실패) 한국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 한국 경제 규모가 세계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선을 넘지 못하고 있음
 - 1990년대말 외환위기 직전과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2%에 근접하기도 하였으나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2% 선 돌파에 실패함
 - IMF는 한국 경제 규모의 비중이 향후 5년간 낮아질 것으로 전망함

<그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자료 : 한국은행.

<그림> 한국GDP/세계GDP 비율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IMF통계 이용).
주 : 2016년 이후는 IMF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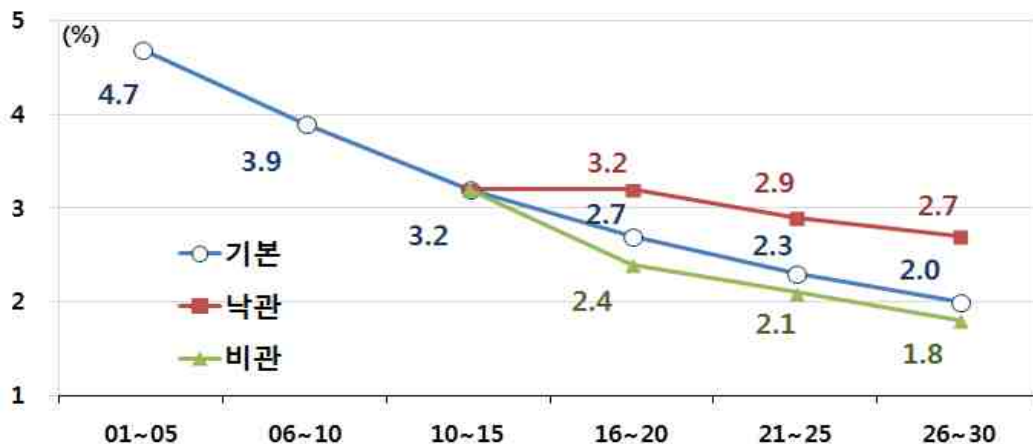
2. 성장 부문의 문제점

- 성장 부문에서 발견되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는 역동성 약화, 방향성 상실, 불확실성 증폭 등을 들 수 있음

① 역동성 약화

- 한국경제는 경제성장률 2%대의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1%대의 경제성장률에도 익숙해질 것으로 판단
 -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1~05년 연평균 4.7%에서 2016~20년 동안에는 2.7%로 급락함
 - 나아가 잠재성장률은 향후 10년 후에는 연평균 2% 내외 수준에 그칠 것이며 1%대의 성장률에도 익숙해질 것으로 예상됨
- 저성장의 원인은 과거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의 힘이 되었던 가계 및 기업의 역동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
 - (가계) 저성장에 따른 구매력 정체로 가계 부문에서는 취업 포기자 급증, 소비성향 위축 등의 현상이 나타남
 -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투자 부진, 기업저축 증가, 창업률 하락, 산업 구조 고착 등의 기업활력 저하 현상이 나타남

<그림>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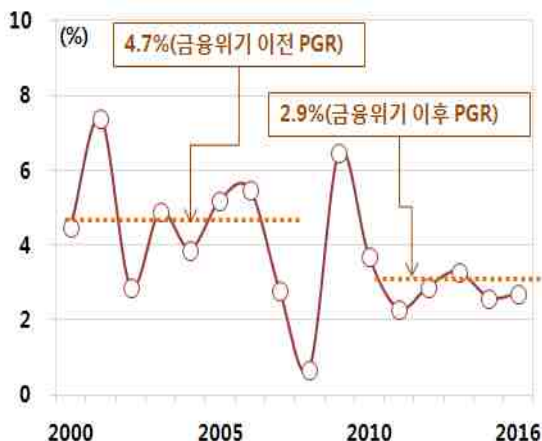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② 방향성 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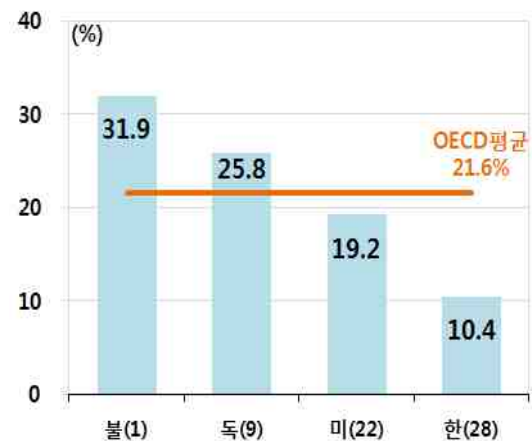
- 한국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성장잠재력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시급히 높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
 -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연평균 4.7%에서 금융위기 이후 2.9%로 급락함
- 동시에 한국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경제 내 자원 할당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
 - OECD의 기준에 의하면 2014년 한국의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4%로 OECD평균(21.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복지가 뒷받침되어야 지속성장이 가능하기에 복지정책이 요구되나, 저성장 합정 극복이 시급하기 때문에 성장과 복지의 선후관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
 - 한국경제는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경제발전의 핵심이 성장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복지가 뒷받침되어야 지속성장이 가능하기에 복지정책의 확대가 요구되나, 경제발전을 위한 성장과 복지의 선후 관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그림> 금융위기 전후 경제성장률



자료 : 한국은행.

<그림> 공공사회지출/GDP 비율('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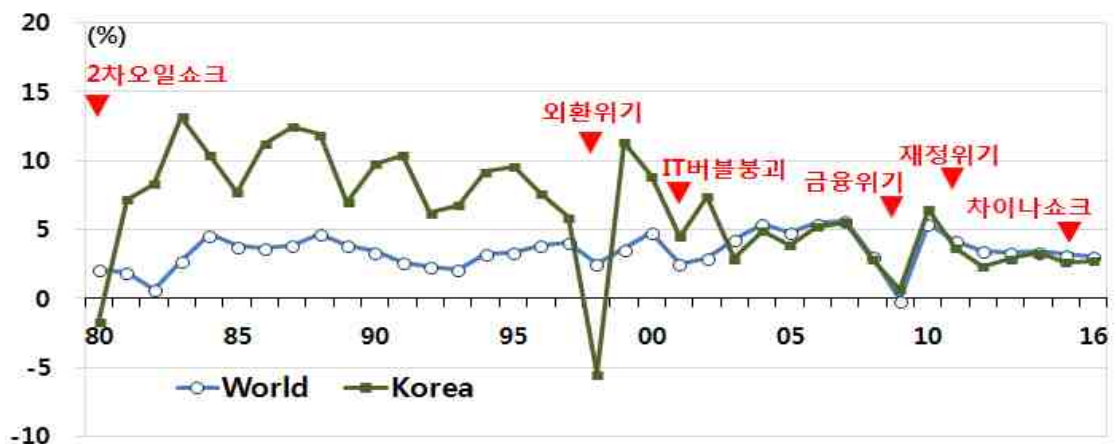


자료 : OECD(Public Social Expenditure).
 주 : 괄호안은 28개국중 순위.

③ 불확실성의 증폭

- 최근에 들어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경제충격이 상시화되면서 성장력이 감소하고 경기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발생
- 세계경제는 1980년 2차 오일쇼크 이후 약 20년동안 큰 경제위기가 없는 황금시대(golden age)를 경험하였으나,
- 1990년대 말 아시아의 외환위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최소 5번의 거대하고 광범위한 경제충격을 경험함
- 특히 최근 10년 내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유럽재정위기(2012년), 차이나리스크(2015년)의 세 번의 큰 경제충격이 발생하면서 세계 및 한국 경제의 안정성이 위협을 받음
- 이에 따라 가계와 기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유동성 동맥경화’와 ‘부채성장’이 유발
-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구매력이 있는 가계와 기업의 민간 주체들은 지출을 줄이고 저축과 자산투자에 집중되면서 유동성의 순환이 차단됨
- 반면 재무상황이 취약한 가계와 기업들은 부족한 구매력을 보충하기 위해 부채를 늘리면서 ‘부채성장(유동성으로 경제가 지탱)이 장기간 지속됨

<그림> 세계 및 한국 경제성장률과 주요 경제충격



자료 : IMF, 한국은행.
 주 : 경제충격의 예시는 연구원의 자의적 기준.

3. 성장 부문의 비전과 전략

<그림> 성장 부문의 비전과 전략 요약

비전: 성장판 회복을 통한 중성장 경로 복귀

『3 - 3 - 3』 목표 달성

- ① 잠재성장률 3% 달성
- ②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대 진입
- ③ 세계경제 비중 3% 돌파

전략 1. 역동적 성장잠재력의 복원

- 역동성 회복을 통한 경제 활력 확보
- 무형의 내연성장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구조의 업그레이드
-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제고 노력

전략 2. 한국형 경제발전전략의 구축

- 실현 가능성이 높은 추격형 성장전략 추구
-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모델 유지
- 기업-민간 주도형 경제성장
- 성장 주도형 분배 시스템의 구축

전략 3. 안정적 경제성장경로의 확보

-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대외 불확실성 차단
- 내수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안전판 기능 강화

□ 성장 부문 비전: **성장판 회복을 통한 중성장 경로 복귀**

『3-3-3』 목표 달성

① 잠재성장률 3% 달성

②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대 진입

③ 세계경제 비중 3% 돌파

□ 성장 부문 3대 전략:

① 역동적 성장잠재력의 복원

② 한국형 경제발전전략의 구축

③ 안정적 경제성장경로의 확보

□ 성장 부문 9대 과제

전략 1 역동적 성장잠재력의 복원

① 역동성 회복을 통한 경제 활력 확보

- (시장경쟁원리 정립) 시장원리를 근간으로 하여 공정경쟁의 규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 기대
 - 원칙적으로 확고한 시장원리에 의해 경제시스템이 운영이 되어야 하며, 정부의 시장개입은 시장실패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한편 시장원리는 경제주체간 공정한 경쟁의 룰(rule)이 지켜지는 것을 전제

로 하기 때문에, 정부는 공급자간 공정경쟁 확립과 수요자의 소비자잉여 확보 등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성과보상주의 확립) 성실하고 근면한 주체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사회 전반에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 원칙이 확립되어야 경제 전체적으로 낭비적인 요인이 사라지고 경제의 활력이 확보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모든 성과가 생산성에 의해 결정이 될 수 있는 보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 (프론티어 정신 확산) 기업과 개인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위험을 회피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 조성

- 기업의 사업 확장에 소요되는 기초자본의 조달 방식에서 부채보다 투자의 비중이 높아져 리스크의 분담이 가능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임
- 특히 벤처 기업을 뒷받침해주고 투자를 하게 하는 금융산업의 역할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력과 미래 가능성에 기초해 과감한 투자를 하는 ‘모험 자본’이나 ‘엔젤 투자’의 육성을 위한 금융 제도 개선이 시급함
- 한편 개인의 창업 활동이 보다 장려되는 것도 중요하나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 조성과 재기가 가능한 제도상의 뒷받침이 필요함

② 무형의 내연성장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구조의 업그레이드

- (창의와 혁신 주도 경제시스템 구축) 사회 내 모든 분야에서 창의성이 강조되고 혁신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경제 구조가 요구

- 민간주체들의 뛰어난 아이디어와 혁신적 활동이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임

-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 제도 확립) 창의적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인적자본투자 확대가 시급

- 입시 위주의 공교육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다양성과 창의성이 배양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21세기형 교육제도의 확립이 필요함
 - 특히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고 경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스스로의 재정적 독립과 학문적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임
- (사회 투명성 제고) 부패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비경제적인 낭비요소를 제거
- 부패의 폐해에 대한 대 국민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부패 예방은 물론 부패 발생 시 이를 강력히 통제할 수 있는 당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또한 각종 법·제도, 감사기구 등 관련 기관들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③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제고 노력

- (자본축적 확대) 경제성장의 핵심 원동력인 자본축적과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활성화 노력 경주
- 투자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특히 R&D 투자에 대한 세액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대책이 요구됨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신성장 동력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 육성과 사업화 등을 통한 조기 산업화 노력이 필요함
- (노동력 확보) 미래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노동시장구조의 유연성 확보, 출산율 제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촉진, 적극적 이민정책 등이 필요
- 가까운 시일 내에 노동 인구의 절대적 부족 현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의 유연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가능인구를 확보를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산 등의 다각적인 출산율 제고 정책이 요구됨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와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보육 시설 확충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적극적 이민정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급감을 보완해야 할 것이며, 외국인 우수인력의 유입 확대를 위해 체류 만족도 제고 및 체류 장기화를 유도

전략 2 한국형 경제발전전략의 구축

④ 실현 가능성이 높은 추격형 성장전략 추구

- (추격형 성장 모델 유효) 현실적인 추격형 성장 모델의 기초를 유지
 -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은 선도형 모델을 추구하면서 발생하는 시행착오와 이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음
 - 특히 한국경제가 공급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 미흡한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성장 전략은 선도형 모델보다 추격형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장기적으로 선도형 성장 모델로의 이행) 멀리 본다면 경쟁국들보다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과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존재

⑤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모델 유지

-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성장) 수출이 경제성장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내수가 경제의 안전판으로 작용하도록 유도
 - 우리의 시장과 규모의 제약성을 감안할 때 수출만이 한국경제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
 - 내수는 그 성장 속도가 느리다는 한계성을 가지기 때문에 내수중심의 성장은 저성장 기조에 순응하겠다는 의미일 뿐임
 - 따라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이 아니라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고 내수가 그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성장구조가 요구됨

- (적극적인 미래 수출시장 확보 노력)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출시장을 지키려는 정적이고 수성적인 전략에서 벗어나 미래 수출시장을 예상하고 선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새로운 시장 발굴 및 히트 상품 개발을 통한 신규 수요 확보를 통해 수출 확대의 전기 마련을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함
-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역량을 확충하고 글로벌 생산·유통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무역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됨

⑥ 기업-민간 주도형 경제성장

- (기업 생산 주도형의 성장) 일회적인 소득이나 소비 등의 수요가 아닌 지속 성장과 환류가 가능한 ‘산업과 기업의 생산 주도형’ 성장 전략이 필요
- 성장 시스템의 환류가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경제 선순환 구조의 맨 앞에 있는 기업의 투자 및 생산활동이 확대되어야 가능함
- 이를 통해 고용이 창출되고 소득이 늘면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경로를 확보할 수 있음
- (민간 주도형의 성장) 민간 영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산업과 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성장 전략이 필요

⑦ 성장 주도형 분배 시스템의 구축

- (先성장 - 後분배) 성장으로부터 시작되어 그 과실이 분배되는 선순환 (virtuous circle) 구조를 확립
-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의 급감으로 취약계층의 복지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세수가 감소하여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음
- 이에 따라 한정된 정부 재원이 성장 부문에서 분배 부문으로 이동하게 되어 경제 성장력이 더욱 하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함
- 특히 향후 중장기적으로도 세계 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

- 아 분배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 구조가 지속되고 국가부채가 누적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성장을 위한 정책적 비중을 높여 경제 전체의 파이를 확장하여 분배 수요를 충족하는 선(先)성장 후(後)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함
 - (분배정책의 역할 강화) 다만 분배-복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경제성장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성장 일변도의 경제발전 전략이 아닌 성장과 분배간 긍정적인 상호작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

전략 3 안정적 경제성장경로의 확보

⑧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대외 불확실성 차단

- (글로벌 위기의 상시화 대응)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로 인한 글로벌 위기의 상시화 가능성을 고려한 대외충격 파급경로의 관리가 필요함
 - 수출 시장과 품목의 다변화를 통해 교역 경로를 통한 특정 지역의 위기 전염 영향을 낮추어야 할 것임
 - 통상 대외 충격의 주된 파급경로인 금융 및 외환 시장 안정성을 제고시켜 해외 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야 함
 - 특히 글로벌 유동성의 이동 속도가 빠르게 전개될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 채권, 외환 시장에서의 투기 자금과 변동성 변화에 대한 감독 기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 (차이나 리스크 대응 전략 마련) 중국경제는 중장기적으로 최소 한번 이상의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
 - 중국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상시 점검, 위기의 전염 경로 파악과 위기 발생시 완충 기능이 작동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가장 가능성이 높은 중국의 증시불안, 은행부실 등 금융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리스크 헷지 수단의 강구 노력 등이 요구됨

⑨ 내수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안전판 기능 강화

- (내수 건전성 관리) 가계부채 확대를 경계하고 실물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내수의 구매력 확충에 주력

- 신용확대를 통한 소비 진작의 폐해를 인식하고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실물 경제의 성장 속도를 넘지 않도록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 노력이 요구됨
- 한편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는 유동성의 원활한 순환을 위하여 자산 유동화, 주택 가격 상승 억제 등으로 시중 유동성이 정상적이고 건전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 (재정 및 통화정책의 유연성 확보) 재정 및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경기안정화 기능 제고를 도모

- 재정 및 통화 정책은 경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의사결정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됨
- 또한 매년 반복되는 향후 경제상황에 지나친 낙관론을 지양하고 보다 객관적인 자세로 경제 현상을 직시하여 경제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HRI**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